

한국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정부용

토호쿠후쿠시대학교 대학원 종합복지연구과

Influence on Successful Aging and Mediation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by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of Public Officials in Korean Baby Boom Generation

Bu-Young Jeung

Dept. of Social welfare, Tohoku Fukush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준비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참여 태도는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참여 태도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참여 태도와 성공적 노후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베이비붐 세대, 사회참여 태도, 노후준비, 성공적 노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baby boom generation. For this purpose, the mediation effect of the parameter of retirement preparation was confirmed to their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 that influenced on successful aging. The research trie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h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ful-regression analysis for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with SPSS 23 progra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 affect successful aging. Second, social participation affects retirement preparation. Third, retirement preparation affects successful aging. Fourth, the relationship of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 and successful aging are influenced mediation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Finally, discussed the future research topics.

Key Words : Baby boom generation,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retirement, Successful aging

1. 서론

세계 각국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1]. 2009년 UN은 '세계인구 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균수명 80세를

넘는 국가가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국도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수명의 기준 또한 '80세'에서 '100세'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명연장은 한국노인의 생애주기에서 점차 노년기가 길어짐을

*Corresponding Author : Bu-Young Jeung(ilbon5951@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January 2,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8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년기의 장기화는 노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해야 한다. 노후기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노후준비는 보다 길어진 노년기의 삶에서 또 다른 과제로 주어진다. 길어진 노년기의 삶에 맞는 철저한 준비야 말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삶에 대한 의지이자 인식인 셈이다.

한국은 2010년을 전후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시작되었는데, 건강, 경제력, 학력, 지식, 전문적 사회경험을 모두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2].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향후 20년간에 걸쳐 다수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령자의 은퇴라 하면 사회적으로 필요 없고, 무기력한 노년으로 퇴장하는 것이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에 반하며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욕구와 적극적 활동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나 저축을 통한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활동 영역 내에서 재능을 발휘하기를 원하며, 문화생활 등을 통해 여가시간을 풍요롭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3]. 김동배[4]와 권현정[5]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여가생활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의 인생 또는 노년기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현상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6].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후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설계를 통해 가치 있는 노후의 삶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비용을 줄여 전반적인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7].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의 성공적인 사회적응,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8]. 본 연구에서 살펴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무원이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한국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집단으로서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닌 유능한 사회적 인적 자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참여 태도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망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9].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참여 태도는 노년기 동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고독감과 역할 상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 참여와 활력을 갖게 될 수 있다[10]. 이러한 노년기의 사회참여는 사회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노년기에는 직장과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특히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의 사회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 및 준비는 신체, 심리,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율성, 자기통제 등과 같은 심리적 안녕 및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인 준비, 적극적인 인생참여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후에 대한 인식 및 노후준비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성공적 노후는 노후준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 경제 산업의 동력이자 주역으로 활동하였던 베이비부머세대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성공적인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참여 태도를 살펴보고 노후준비를 매개로 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 뉴실버, 뉴에이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준비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2.1 가설설정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태도가 노후준비를 매개로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사회참여 태도는 성공적 노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사회참여 태도는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사회참여 태도와 성공적 노후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가 매개할 것이다.

2.2 연구대상 및 실험절차

본 연구는 측정도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타당성,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 강원도 내에 근무하는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50세 이상의 중년층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밝히고 수정 혹은 보완될 항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1차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 강원도내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인제군, 영월군, 고성군)과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 강원도 경찰청 경찰공무원 등 한국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인 50세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800부의 설문조사를 하여 730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무성의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응답 및 극단치가 있는 설문지 84부를 제외한 최종 646부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정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노후준비, 사회적 참여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 설문지는 사회 참여태도 6문항, 노후준비 27문항, 성공적 노후 27문항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하고 총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사회 참여태도

본 연구에서의 노인의 사회 참여태도란, 개인의 단독적인 활동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제외한 단체 및 기관 가입 등의 공식적 사회활동,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망, 사회적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 종교활동이나 자원봉사, 각종 모임 참석 등 외부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사회활동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 참여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ngen과 Peterson[11]이 개발한 사회참여 태도 및 만족도 척도 중에서 여미옥[2]이 사용한 6개 항목을 추출

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인지하는 사회참여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사회참여 태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연구와 같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2$ 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2 노후준비

노후준비란 '노후를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로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및 계획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중년층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학자마다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사회적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노후준비는 배계희[12], 신승희[13] 신미숙[14]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9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8문항,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10문항 등 총 27문항의 하위요인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정서적 요인의 Cronbach's $\alpha=0.794$, 신체적 요인의 Cronbach's $\alpha=0.792$, 경제적 요인의 Cronbach's $\alpha=0.680$ 으로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3.3 성공적 노후

성공적 노후란 건강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적 건강과 삶의 만족이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성공적 노후 측정 도구는 김동배[4]가 개발한 성공적 노후척도를 참조하여 수정후 사용하였다. 김동배의 성공적 노후척도는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그리고 타인수용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각 문항은 김동배[4]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9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8문항,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10문항 등 총 27문항의 하위요인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편이다(4), 매우 그런편이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적극적 인생참여 Cronbach's $\alpha=.821$, 자녀만족 Cronbach's $\alpha=.760$, 타인수용 Cronbach's $\alpha=.627$ 로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조사를 통해 회수된 646명의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82.8%(535명), 여성이 17.2%(111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50-52세가 53.4%(345명), 53-55세 26.6%(172명), 56-58세 18.1%(117명), 59세 이상 1.9%(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으로는 대학원졸이 39.0%(252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졸 36.7%(237명), 고졸 15.8%(102명), 전문대졸 8.2%(53명), 고졸 이하 0.3%(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로는 기혼(배우자 있음) 97.8%(6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과 사별, 별거 또는 이혼이 1.1%(7명)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로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60.7%(392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30.3%(196명), 매우 양호하다 6.7%(43명), 좋지 않다 2.3%(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부모부양으로는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5.6%(424명)로 가장 많았으며, 부양하고 있다는 응답이 34.4%(222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으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75.5%(488명), 유복한 편이다 21.8%(141명), 어려운 편이다 2.5%(16명), 매우 유복한 편이다 0.2%(1명)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로는 2명이 75.7%(489명), 3명 12.4%(80명), 1명 10.7%(69명), 4명 이상 1.2%(8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6급 공무원 56.7%(366명), 5급 이상 공무원 29.9%(193명), 7급 공무원 10.5%(68명), 8급 이하 공무원 2.9%(19명)으로 나타났

으며, 배우자 직업 유무로는 직업이 있다 79.3%(512명), 직업이 없다 20.7%(134명)으로 나타났다. 직장경력으로는 25년 이상이 39.6%(256명), 20년 이상 33.1%(214명), 30년 이상 19.7%(127명), 15년 이상 7.0%(45명), 10년 이상 0.6%(4명)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으로는 300-500만원 미만 47.1%(304명), 500-700만원 미만 31.3%(202명), 700만원 이상 15.5%(100명), 300만원 미만 6.2%(4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pondents statistical characteristic

Variable	N	(%)	Variable	N	%		
Gender	Male	535	82.8	Marital state	First marriage	632	97.8
	Female	111	17.2		Single	7	1.1
	Sum	646	100.0		Etc(Remarriage, Marry over)	7	1.1
Age	50-52	345	53.4	Condition of health	Sum	646	100.0
	53-55	172	26.6		Bad	15	2.3
	56-58	117	18.1		Normal	196	30.3
	More than 59	12	1.9		Good	392	60.7
	Sum	646	100.0		Very Good	43	6.7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	.3	Parental Support	Sum	646	100.0
	High school	102	15.8		Not support	424	65.6
	College	53	8.2		Support	222	34.4
	University	237	36.7		Sum	646	100.0
	Graduate school	252	39.0		Children	1	69
Sum	646	100.0	2	489		75.7	
Economic state	Bad	16	2.5	3		80	12.4
	Middle	488	75.5	More than 4		8	1.2
	Good	141	21.8	Sum		646	100.0
	Very Good	1	.2	Spouse of job state	Employment	512	79.3
	Sum	646	100.0		Unemployment	134	20.7
Civil servant	C8	19	2.9	Career	Sum	646	100.0
	C7	68	10.5		More than 10 years	4	.6
	C6	366	56.7		More than 15 years	45	7.0
	More than C5	193	29.9		More than 20 years	214	33.1
	Sum	646	100.0		More than 25 years	256	39.6
Income level per month	less than 3 million	40	6.2	More than 30 years	127	19.7	
	3 million - 5 million	304	47.1	Sum	646	100.0	
	5 million - 7 million	202	31.3				
	More than 7 million	100	15.5				
	Sum	646	100.0				

3.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의 왜도 범위는 -.40~.38, 첨도 범위는 -.36~1.41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8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15].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3.71	.56	-.26	.50
Preparation for Old Age	3.53	.44	.05	.58
Emotional preparation	3.42	.67	-.40	-.36
Physical preparation	3.54	.55	-.07	.16
Economic preparation	3.64	.58	-.38	.12
Successful aging	3.79	.40	.33	.09
Self-Completion Orientation	3.69	.62	-.11	-.18
Satisfaction with child	4.00	.58	-.40	.08
Autonomous life	4.08	.47	-.11	.49
Active involvement in Life	3.61	.58	.05	.31
Other-acceptance	3.58	.58	-.21	1.41

3.3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사회참여 태도와 경제적 준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으며 그 이외의 모든 변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N=646)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Emotional Preparation	Physical Preparation	Economic Preparation	Self-Completion Orientation	Satisfaction with child	Autonomous life	Active involvement in Life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1							
Emotional Preparation	.45***	1						
Physical Preparation	.38***	.45***	1					
Economic Preparation	.07	.27***	.26***	1				

Self-Completion Orientation	.26***	.61***	.22***	.36***	1			
Satisfaction with child	.19***	.41***	.23***	.20***	.21***	1		
Autonomous life	.21***	.41***	.27***	.30***	.46***	.26***	1	
Active involvement in Life	.48***	.55***	.28***	.12**	.48***	.42***	.33***	1
Other-acceptance	.18***	.38***	.43***	.22***	.42***	.27***	.44***	.41***

p <.01, *p <.001

3.4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인이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후준비의 3개 하위요인은 성공적 노후의 5개 하위요인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노후 준비 모두를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4>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on successful ag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R ²	F
Self-Completion Orientation	Physical Preparation	-.10	.03	-.11**	.43	159.21***
	Emotional Preparation	.68	.04	.60***		
	Economic Preparation	.24	.03	.23***		
Satisfaction with child	Physical Preparation	.04	.04	.04	.18	46.54***
	Emotional Preparation	.38	.04	.37***		
	Economic Preparation	.09	.04	.09*		
Autonomous life	Physical Preparation	.05	.03	.07	.21	57.36***
	Emotional Preparation	.28	.03	.33***		
	Economic Preparation	.16	.03	.19***		
Active involvement in Life	Physical Preparation	.05	.03	.06	.30	93.43***
	Emotional Preparation	.56	.04	.53***		
	Economic Preparation	-.04	.04	-.04		
Other-acceptance	Physical	.27	.03	.31***	.23	65.30

tance	Preparation				
	Emotional Preparation	.24	.04	.23**	...
	Economic Preparation	.08	.04	.08*	

p <.01, *p <.001

3.5 사회참여 태도와 성공적 노후 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 여기까지 단계의 검증이 모두 유의미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두 번째 단계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보다 작게 나타나야 한다. 이 작아진 표준화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면 완전매개(full mediating),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하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가 성립된다고 본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Durbin-Watson 계수는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참여 태도와 성공적 노후 간의 관계를 노후준비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한 분석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참여 태도가 매개변인인 노후준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40, p<.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참여 태도가 종속변인인 성공적 노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beta=.38, p<.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참여 태도($\beta=.15, p<.001$)와 노후준비($\beta=.57, p<.001$)가 성공적 노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38에서 .15로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회귀계수 값이 계속 유의미하므로 노후준비는 사회참여 태도와 성공적 노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매개변

인을 하위요인 별로 나누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는 사회참여 태도와 성공적 노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준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자면 사회참여 태도는 성공적 노후와 노후준비에 정적영향,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후에 정적영향, 사회참여 태도는 노후준비를 거쳐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으므로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 모두가 채택되었다.

<Table 5> Mediating Effect Model of Retirement Preparation

Step	Variable	B	β	R ²	F
1 (Independent->Mediation)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Preparation for Old	.32	.40***	.16	124.93***
2 (Independent->Dependen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uccessful aging	.27	.38***	.15	108.78***
3 (Independent, Mediation->Dependen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uccessful aging Preparation for Old->Successful aging	.11 .51	.15*** .57***	.42	227.77***
1 (Independent->Mediation)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Physical Preparation	.45	.38***	.14	107.29***
2 (Independent->Dependen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uccessful aging	.27	.38***	.15	108.78***
3 (Independent, Mediation->Dependen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uccessful aging Physical Preparation->Successful aging	.19 .18	.27*** .31***	.22	92.86***
1 (Independent->Mediation)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Emotional Physical Preparation	.44	.45***	.20	161.08***
2 (Independent->Dependen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uccessful aging	.27	.38***	.15	108.78***
3 (Independent, Mediation->Dependen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uccessful aging Emotional Preparation->Successful aging	.07 .46	.10** .64***	.47	281.20***
1 (Independent->Mediation)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Economic Preparation	.07	.07	.01	3.04
2 (Independent->Dependen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uccessful aging	.27	.38***	.15	108.78***
3 (Independent, Mediation->Dependent)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Successful aging Economic Preparation->Successful aging	.25 .22	.36*** .32***	.24	103.63***

***p <.001

4. 논의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 뉴실버, 뉴에이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 중년 공무원의 은퇴 후 준비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국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태도와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결과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박경희[17]는 은퇴 후 노년기라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시기에서 사회참여는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충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조해경[18]은 사회참여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직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소속감 및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owe 와 KahnRowe[19] 또한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태도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회속에서 친밀한 관계 유지 및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은퇴 후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강조하며,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성공적 노후의 적응에 더욱 성공적이라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이상과 같이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참여 태도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년기 사회참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실태와 역할, 중요성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노후 사회참여 태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미 검증되었으며, 노년기 사회참여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성공적인 노후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20].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성공적인 노년기를 가능하게 한다[21]. 김종인[22]은 현재의 사회참여 태도가 노후의 사회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병철[23]의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와 노년기 사회참여 의향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과로 나타났다.

여미옥[2]은 사회참여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사회조사[24]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경제적 어려움, 질병등 건강문제, 소일거리 없음, 고용의 불안정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사결과 노후준비는 노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노화로 인해 건강의 악화 및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5]. 박선희[26]의 연구에서는 노후준비가 철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희종[27]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개인의 노후준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곧 성공적인 노후와 직결되므로 본 논문에서와 같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상과 같이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참여 태도와 성공적 노후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연구결과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사회참여 태도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참여 태도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결과 성공적 노후를 위해 사회참여 태도와 함께 노후준비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회참여는 노년기의 마지막 생애주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노년기의 사회참여 의향은 퇴직 이전까지 어떤 사회참여 활동을 해 왔는가와 사회적 노후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더 풍부한 인적 자원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들이 긴 노년기 동안 의미 있는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일과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장 내 혹은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원봉사나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 노년층 문화와 관련하여 건강, 자원봉사, 생산적 노인을 강조

하는 사회 활동 참여가 점차 독려되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자료[28]에서는 노인들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부분 1위가 여행, 2위가 사교 관련인 것을 감안할 때,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 및 건강지원센터의 활용 등을 통해 노인 및 중장년층의 니즈(needs)를 기초로 한 각종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기관 및 각종 지원센터에서도 경제와 문화 방면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보다 더욱 차별화되고 구체화된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노후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퇴직준비 및 노후준비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은퇴 후 여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함께 한다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또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사회참여 의식, 성공적 노후의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K도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만을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나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세밀한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J. Chae, "A study of the volunteering activities of the retired civil servants". Dankuk universith, 2015.
- [2] M. O. Yeo, "A Study on th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of Elders". Mokwon Universith, 2013.
- [3] K. O. Cho, J. S. Lee, S. K. Park, "The rise of baby boomers, policy paradigm change is necessary".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Vol 35, 2011.
- [4] D. B. Kim, "A Study on Activating Leisure Services for the Elderly". Yonsei Administration, Vol 25, pp. 137-160, 2008.
- [5] H. J. Kweon,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the cultural activitie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Kangnam University, 2008.
- [6] S. J. Choi, "Social welfare policy direction for the aging society", Myongji University Social Science Institute, Vol 21, pp. 135-149, 2011.
- [7] T. H. Kim, "A Study on Successful Decrepitude of Baby Boomer", Sungsil University, 2011.
- [8] H. J. Kang, "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ocial Integration to Whether the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of Baby boom generation",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57, pp. 429-448, 2012.
- [9] S. H. Moe, "Modern Elderly Welfare", Hakjisa.
- [10] K. H. Lee, "Social Participation and Voluntarism of the Elderly",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12, pp. 7-24, 2001.
- [11] Magen peterson Mangen, D. J.& Peterson, W. A. "Research Instrument sin Social Gerontology: Clinical and Social Psychology", Vol. 1,2,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 [12] K. H. Bae, "A study on preparation for old age of adulthood", Dongguk universith, 1988.
- [13] S. H. Shin,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Kyungsung University, 2010.
- [14] M. S. Sin, "According to the lifestyles of older adults Information Navigation attitude and preparationfor aging", Daegu Haany University, 2012.
- [15]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16]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 1173, 1986.
- [17] K. H. Park " A Study on the factors of influencing on successful aging",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18] H. K. Cho, "A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Yonsei university, 2002.
- [19] J. W. Rowe, R. L. KahnRowe,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 37, pp 433-440, 1997.

- [20] G. H. Kim, J. Y. Woo, "The Effect of Family Support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on Elderly People Social Participation", The Korean Associ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19, No. 2, pp. 317-335, 2012.
- [21] Hooyman, Kiyak., Hooyman, N.R., Kiyak, H.A, "Social Gerontology"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8.
- [22] J. I. Kim, Study on baby boomers desire on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nseo university, 2012.
- [23] B. C. Oh, "Male baby boomer Employees' Attitude towards Retirement,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Intention of Social Activities in the Old age", Hanseo University, 2012.
- [24] Statistical Office, "2011 Social Survey Results", 2011.
- [25] J. Y. Jin, K. S. Ha, "A study on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d on the satisfaction of th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45-57, 2016.
- [26] S. H. Park, "Ready to retire studies on the effects on quality of life factors", Korea University, 2010.
- [27] H. J. Lee, "A study on Influence about Seniors' quality of life with Preparation for Income after retire", Seoul University, 2008.
- [28] Statistical Office, "Elderly person statistics", Survey of Welfare for the Aged, 2014.

정 부 용 (Jeung, Bu Young)

[정회원]



- 2004년 3월 : 일본 토호쿠후쿠시 대학 대학원 종합복지학연구과 사회복지학 전공(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3월 : 일본 토호쿠후쿠시 대학 대학원 종합복지학연구과 사회복지학 전공(사회복지학 박사

과정 수료)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베이비 부머
- E-Mail : ilbon5951@hanmail.net